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강 원도 춘천과 경북 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는 산악지대에 왕복 4차선의 장대한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공사이다.

오랜 공사기간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위험이 따르는 공사이므로 시공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 없기에 항상 안전문제에 역점을 두고 공사에 임하게 된다.

본인의 공사현장에서는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몇건의 재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전 건설인들이 풀어야 할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인재는 우리 건설인들이 세심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구두로 부르짖는 안전은 팽배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몸으로 실천하는 안전은 빈약하기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재해는 타인이 아닌, 나의 가족, 더 작게는 나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로서 몸으로 실천하는 안전생활 속에 무재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들이 용왕매진한다면 풍요로운 건설문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 동 환 / 임광토건(주) 토목부 사원

현 재 안전교육 및 재해 방지를 철저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근무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본인도 많은 경력으로 현재까지 현장을 이끌어 왔지만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은 안일하게 생각하며 현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에 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건설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본인이 당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안전관리자의 형식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관심과 정열이 부족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미수립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안전조직은 사고(재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지식의 결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이란 인간존중의 실천이며, 그 목적은 인적·물적 재해를 예방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로 인한 원가절감은 크나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이란 인식을 근로자 자신까지 확산시키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 모두 재해예방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배충기 / 광정건설(주) 공사부 차장

우리는 안전이라는 매우 소중한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의 효시임을 깨달아 대충이라는 우리의姑息적인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는다.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안전 취약점에 처하여 철저한 안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안일한 마음 자세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백만분의일의 사고확률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무사고 무재해 운동에 다같이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

또한 재해를 입고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입장을 남의 일만으로 보지 말고 易地思之를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명량한 일터를 가꾸가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에 한 Training場으로 삼고, 우리 모두에게 생산적인 가치와 꿈을 실현시켜가는 활기찬 일터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무사고 행진의 꿈은 좌초되었지만 이어지는 생활무대이니만큼 오늘의 교훈을 내일의 전화위복으로 삼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보호구 착용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둘째, 안전결함 개소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성급한 자세로 임하지 말 것이며 작업중에는 잠נם을 배제할 것이며

셋째, 작업 후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밝고 명량한 우리 일터를 조성해 가자.

류원선 / (주) 미국엔지니어링 공사부 과장